

# 낸드 본뜬 사옥, '혁신 대명사' 실리콘밸리 넘어 글로벌 침범

## 삼성전자 DS 미주 총괄사옥 가보니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산호세 국제공항에 내려 차로 15분쯤 달리자 낮고 평범한 건물들 사이로 높고 웅장한 하얀색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외관은 3개의 층으로 나뉜 것처럼 보였고 촘촘하게 나 있는 창문이 특징이다. 한 눈에 봐도 특이한 이 건물의 정체는 반도체의 단면 구조를 형상화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미주총괄법인(DSA)이다.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오종훈 상무는 건물의 형상에 대해 "총 10층짜리 건물을 3개 층으로 나뉘었으며 3개는 '삼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반도체의 단면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건물의 모습과 거의 같다"며 "말하자면 이 건물은 엄청나게 큰 반도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은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 같은 존재로 알아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6년 준공된 신사옥으로 반도체 부문 미주총괄과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직원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산호세 랜드마크, '삼성 미주총괄 사옥'

산호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는 도시로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메카'이자, 새로운 혁신 기업이 가장 먼저 탄생하는 스타트업의 요람인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산호세에는 삼성 반도체를 포함해 인텔, 시스코시스템스, 이베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3단으로 적층한 모양의 삼성전자 미주총괄 사옥은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업계를 상징하는 건물로 통한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몸통에 파란색 'SAMSUNG' 로고를 박은 하얀색 로봇이 눈에 띈다. 수십여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탑재한 보안 로봇이다. 총 3대의 보안 로봇이 사옥 주변과 주차장을 순회하며 24시간 감시를 통해 수상한 인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미주총괄 사옥은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건강한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건물의 3개 층마다 야외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8층에서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테니스, 농구, 배구 코트와 함께 피트니스센터와 음악감상실도 운영한다. 피트니스센터에선 로봇 팔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 IT 기업의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다.

미주 총괄 사옥의 또 다른 특징은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이다. 연간 최대 800메가와트(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32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 의미 담아 3개 층으로 나뉜  
우수 인재 확보 가능한 혁신 허브  
1992년 세계 최초 64MD램 개발  
2010년 연 매출 10억 달러 달성도**

**AI·5G·자율주행 등 미래먹거리 개발  
스타트업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오종훈 상무는 "옥상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10%를 충당하고 있다"며 "매년 미국 환경부가 발표하는 '100대 친환경 기업'에서 7위에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상위권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IT 회사가 자리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돼 방문한 구내식당은 호텔의 뷔페식당을 방불케 했다. 한식, 일식, 맥시칸, 아메리칸, 이탈리아, 인디안 등 14개의 구역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주문 즉시 조리해줘 직원들은 매일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종훈 상무는 "실리콘밸리에서 한식을 매일 제공하는 구내식당은 여기뿐"이라며 인프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 64MD램 개발, 반도체 R&D 전초기지

삼성전자가 1983년 판매개발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 미국에 진출한 DS부문 미주총괄은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의 한 축을 맡고 있다.

1986년 첫 작품으로 1MB D램을 개발했으며, 1992년 세계 최초의 64MD램 개발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연간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반도체 개발과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 1000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미주총괄은 현재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전장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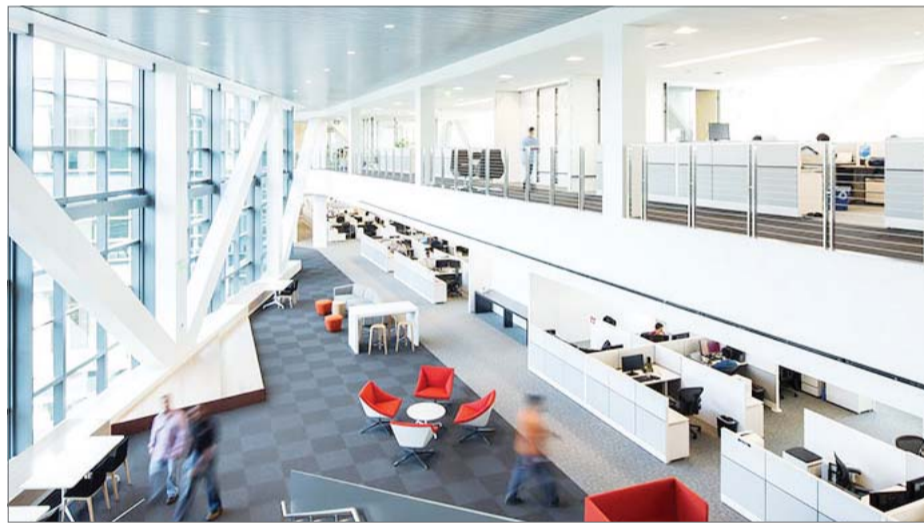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DS부문 미주총괄(DSA) 오종훈 상무가 DSA의 조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내부 모습.

/삼성전자

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에 특화된 키블류 SSD, 인공지능 머신러닝용 스마트 SSD, 고속 네트워크용 SSD와 스토리지를 결합한 NVMeoF SSD 등 새로운 솔루션으로 고객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주총괄이 지난 10월 개최한 '삼성 테크 데이 2018'에는 글로벌 IT업체, 애널리스트, 파워 블로거 등 500여명이 참가해 최신 IT·반도체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에 미주총괄 외에도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와 삼성전략혁신센터(SSIC) 등을 운영하며 차세대 반도체 부품과 AI 등 혁신 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유망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3년 전략적 개방형 혁신을 위해 설립된 삼성전략혁신센터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 글로벌 혁신 허브를 운영하며 전사차원의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 중이다.

AI, 5G, 자동차, 디

지털 헬스 케어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한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CEO 서밋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석학과 투자 전문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략혁신센터는 벤처 투자 전용 펀드인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를 통해 매년 수백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 중이다. 2013년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약 40여개 회사에 투자했으며, 향후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분야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해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리서치 아메리카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분야에서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IoT, 스마트 머신 등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연구역량을 집중하며 삼성전자의 신규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에게 전달해왔다.

한편, 2018년 1월에 개소한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는 실리콘 밸리에서 배출되는 인공지능 관련 우수인력·기업들과 기술적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AI 기술 리더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산호세(미국)·구사윤 기자 yun2514@metro.co.kr



▲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전경.